

▶주(周)대 조공·책봉 관계 성립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관계를 기초로 정치적 연맹 관계를 맺은 주(周)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왕과 제후들 사이에 맺어진 종법적(宗法的) 상하 관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한(漢)대 외교 관계의 변화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성 백등산 전투(기원전 200)에서 흉노에 패배 → 흉노와 화친 조약 체결(기원전 198)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華夷觀, = 화이론) 확립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p>유교에는 원래 ‘하늘이 덕 있는 자를 군주(天子)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 라는 통치 이념(천명사상)이 있었다. 그런데 한(漢) 대에는 중국이 문명의 중심인 ‘중화(中華)’ 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랑캐(夷)’ 로 보는 화이관(중화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이 두 관념이 합쳐지면서 한의 황제는 천명을 받은 천하의 주인이며, 천하는 모두 그의 교화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한이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주(周)가 국내의 제후들에게 하던 조공·책봉의 형식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한이 주변국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책봉한 것은 직접 통치할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형식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한(漢)대 조공·책봉 외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로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	--

▶ 위·진 남북조~수·당대의 국제 질서

국제 질서의 다원화

중국 중심 질서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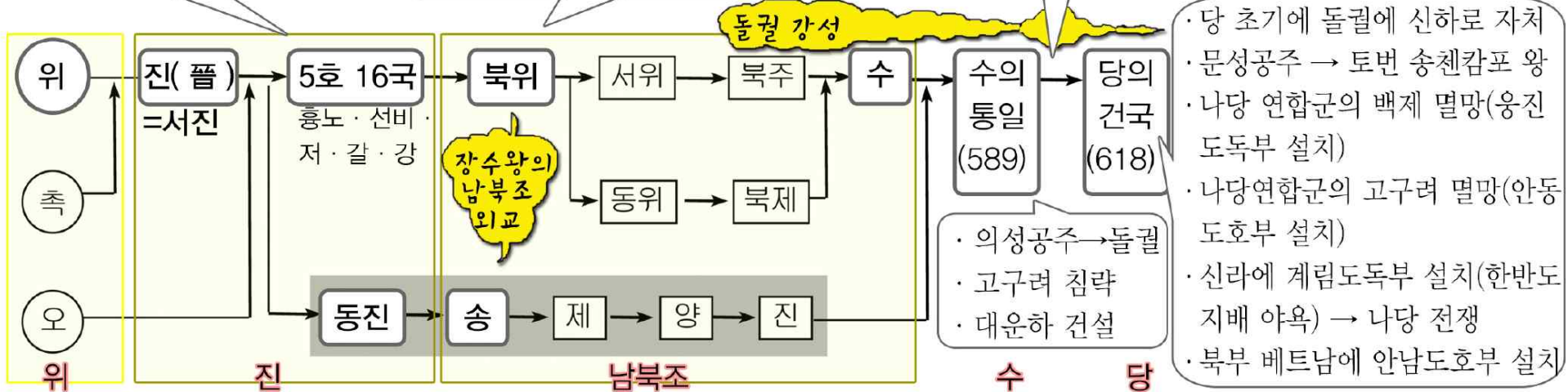
❁ 4세기



❁ 5세기



❁ 6~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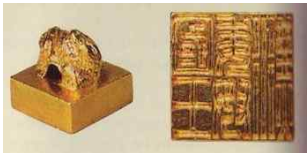
- 당 초기에 돌궐에 신하로 자처
- 문성공주 → 토번 송첸캠포 왕
- 나당 연합군의 백제 멸망(웅진 도독부 설치)
-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멸망(안동 도독부 설치)
- 신라에 계림도독부 설치(한반도 지배 야욕) → 나당 전쟁
- 북부 베트남에 안남도호부 설치
- 의성공주 → 돌궐
- 고구려 침략
- 대운하 건설

① 한(漢)과 흉노(『천재·금성 교과서』, p.58·70)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목북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제(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왕비)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② 후한(後漢)과 왜(倭)



57년에 왜의 노국(奴國)이 공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 사신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 하였다. 노국은 왜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는 인수(印綬)를 주었다.

- 범엽, 『후한서』동이 열전

③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국 중심 세계관(『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56·51·54)

- (동명왕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 태왕(광개토 대왕)의 은혜는 크고 넓은 하늘에 미치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쳐도다. …… **백잔(백제)과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 왔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607년(양제4)** 왜(倭)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라고 하였다. 수(隋) 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의 글 가운데 무례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수서』 왜국전
- 백제의 동성왕 20년(498) 8월,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
- 김부식, 『삼국사기』 백제 본기

④ 고구려와 돌궐(『천재 교과서』, p.58)

영양왕 18년(607) 초, 수의 양제가 카간(동돌궐의 계민)의 장막에 행차하였을 때 고구려 사신이 카간의 처소에 있었는데, 카간이 사신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알현하였다. ……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 돌아가면 너의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여라. …… 그렇지 않으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으로 순행할 것이다.”

- 김부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5) (가) = [_____], (나) = [_____]



그림은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가)의 송첸캄포가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步辇圖)』이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잘 나타나 있다.

6) **돌궐의 외교****(『미래엔 · 비상 교과서』, p.49 · 54)

- 북주(北周, 557~581)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北齊, 550~577)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 『주서』
- (돌궐의) 사근(카간)이 딸을 북주의 무제에게 보낼 것을 승낙하자 북제도 (돌궐에) 청혼하였다. 북주의 청혼이 수용되어 그 딸이 무제의 황후가 되었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 양국을 조종하여 양쪽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냈다. 사근을 이은 타발 카간은 “나에게는 남방에 두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물자가 없어질 걱정이 결코 없다.”라고 호언하였다. - 『주서』

7) **화번공주**(『미래엔 교과서』, p.52)

- (수 문제) 개황 17년(597) 돌궐의 돌리 가한이 사신을 보내 공주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사신을 태상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육례를 가르친 다음, 종실의 딸인 **안의 공주**를 돌리 가한에게 시집보냈다. - 『수서』
- (토번의) 농찬은 돌궐, 토욕훈이 모두 (당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폐물을 갖추어 구혼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 (농찬이) 군대 20만을 동원하여 송주를 침범하고,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친 다음 다시 공주를 맞이하고 싶다고 이르게 하였다. …… (태종은) 종실의 딸인 **문성 공주**를 보내기로 하였다. - 『신당서』
- 북방의 만이는 예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해 왔다. 지금 철륵(돌궐계 부족)의 설연타는 완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하여 혼인의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 북방 민족의 습속은 여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든 여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게 외손자가 된다. 외손자라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주변이 30년간 무사할 것이다. - 『정관정요』

Check!

당(唐, 618~907)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권용기의 동아시아 개념의 연대기, p.37)

돌궐 : 몽골고원에서 흥기 → 북주와 북제가 돌궐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하려고 경쟁 → 수에서 의성공주 파견 → 수의 이간책으로 약화 (돌궐-고구려 연계 움직임) → 당 초기에 당이 돌궐에 대해 신하로 자처 → 당의 이간책과 공격으로 돌궐 제압(돌궐-발해 연계 움직임) → 위구르에 멸망, 켈 테긴 비(돌궐 문자 사용)

무왕 때 당의 산둥반도 공격(돌궐 - 발해 - 일본)
문왕 때 3성 6부 수용, 상경성(장안성 모방)으로 천도

쇼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7세기초)와 견수사 파견과 관련 있다.

견당사 파견 → 다이카 개신(646년) → 백제 부흥 운동에 지원군을 파견(백강 전투) → 견당사 파견 → **다이호 율령(701년)** → 나라에 당의 장안을 본뜬 헤이조쿄(평성경)을 건설, 나라 시대 개막(710~794년), 당풍 유행 → 헤이안쿄(교토) 건설, 헤이안 시대 개막(794~1185) → 당말에 견당사 폐지와 국풍 문화 발달)

신라 사신과 상인들이 규슈의 다자이후를 오가며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래

의상 : 당에 유학하여 신라로 귀국(화엄종 개창)
원효 : 당에 유학, 불교리 집대성, 판비랑론(중국, 일본에 영향), 아미타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현장 : 인도 순례, <대당서역기>, 가져온 경전을 대안탐에 보관 → 명대 소설 <서유기> 관련
의정과 다이탕당 : 인도 순례
감진 :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가르침
혜초 : 신라인으로 당에 유학(밀교), 인도 순례, <왕오천축국전>
엔닌 : 일본(헤이안시대)에서 당에 유학(장보고의 도움, 산둥반도 법화원에서 기숙), <인당구법순례행기>
아베노 나카마로 : 안남도호부(북베트남 통치기관)의 도후를 역임
크영 꾀 푸와 크영 꾀 폭 형제 : 당의 고관을 지낸 안남인
최치원 : 빈공과에 급제하여 당의 관리가 됨(토황소격문)

송첸캄포 왕 때 번영, 당이 토변에 문성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냄(티베트에 불교 전파)

북부 베트남은 한무제 이래 중국의 지배를 천 년간 받음 → 당은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여 지배 → 당 멸망 후 5대 10국의 분열기에 응오 왕조가 첫 독립 → 베트남 최초의 장기왕조인 리왕조는 당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임

장안(시안), 영저우, 광저우, 안남

신라방과 법화원, 신라(나라시대)(헤이안 시대), 동중국해, 남중국해, 발해, 위구르, 토번, 라사, 서돌궐, 동돌궐, 발해, 신라, 일본

■ 당의 초기 영역
--- 수가 만든 대운하
■ 당의 최대 영역

쭉짜, 쭉니 자매의 봉기는 1세기 후한 때

- ※ 교정(646 → 645)
- 쇼토쿠 태자(574~622)
 - 현장법사(602~664)
 - **견당사(630~894)**
 - 송첸캄포(?~649)
↳ **당, 문성공주, 640**
 - **백강 전투(663)**
 - 다자이후(규슈, 671~)
 - 시박사 설치(714~)
 - 발해 고왕(①, 재위 698~719)
 - 발해 무왕(②, 재위 719~737)
↳ 산둥반도 공격(732)
 - **발해 문왕(③, 재위 737~793)**
↳ 상경성 천도(755)
↳ **발해 국왕 책봉(from 당, 762)**
 - **안남도호부(679~862)**
 - 아베노 나카마로(698~770)
 - 최치원(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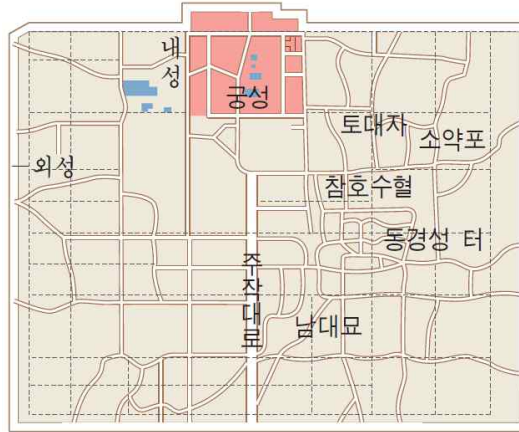
Check!

당(唐) 대의 문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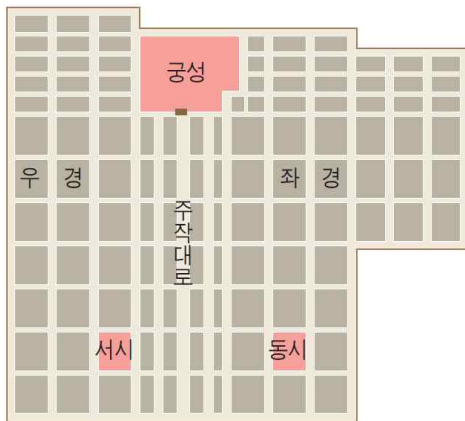
▣ 당, 발해, 나라 시대의 도성 구조



<당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



<나라의 해이조교>

▣ 당 대의 대외 관계



- 도호부
- 책봉·조공
- 교류를 위한 관계
- 조공

개념 Check

- ① 한 무제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의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② 남북조는 서로 사절을 교환하였고, 상대국 사절을 () 사절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 ③ 521년 ()는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양(梁, 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④ 중원 왕조가 정략상 인접 국가의 왕에게 시집보낸 황제나 황족의 딸을 ()라고 한다.
- ⑤ 일본은 당에 대규모 사절단인 ()를 보내 문물을 수용하였다.

01.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3-9모-06]

찬보*는 돌궐과 토욕훈이 (가)의 공주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많은 금은보화와 표문을 바치며 구혼하였으나 허락 받지 못하였다. 얼마 후 토번이 여러 차례 변경을 소란케 하자 (가)의 황제는 군대를 보내 몰아내었다. 이에 찬보가 군사를 물리치고 사죄하며 재차 청혼하자, 황제는 마지못해 공주를 처로 삼도록 허락하였다.

- 『통감기사본말』

*찬보: 토번 왕인 캄포(감포)의 한자 표기

<보 기>

- ㄱ.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 ㄴ. 정북지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ㄷ.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주었다.
- ㄹ.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9모-05]



이것은 둔황에서 발견된 『대승무량수종요경(大乘無量壽宗要經)』이라는 불경으로, (가)의 고유 문자로 작성되었다. 인도 문자를 바탕으로 한 이 문자는 송첸캄포(농찬) 때 창제되었다고 전해진다. 송첸캄포는 (나)의 문성공주와 혼인하고 중국의 예법과 기술 등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문자를 발전시켜 나갔다.

- ① (가) -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 ② (가) -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 ③ (나) -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④ (나) -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여 조공국을 확대하였다.
- ⑤ (가), (나) - 시박사를 두어 해상 무역을 관장하였다.

03.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9모-04 변형]



그림은 [가] 황실이 튀양에 세운 영녕사의 9층 목탑 상상도이다. 선비족이 세운 이 나라는 화북을 통일한 이후 남제 정벌을 내세워 튀양으로 천도하였다. [가]은/는 튀양에 영녕사를 비롯해 1,300여 사찰을 둘 정도로 불교를 중시하였다.

- ①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 ② 고구려와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었다.
- ③ 위구르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 ④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⑤ 유연을 격파하고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04.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자,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 광개토태왕릉비문
- 백제의 동성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 『삼국사기』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라고 하였다.
- 『수서』

- ① 유목민과 농경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 ② 도래인(渡來人)이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③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가 형성되었다.
- ④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 ⑤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이 새로운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 국제 관계의 다원화 Summary

기원전 3~기원전 1세기	3~6세기	7~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고조(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 : _____와의 전쟁 패배 → 화번공주와 물자를 주고 화친 •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 흉노 정벌, 남비엣과 고조선 정복 • 조공·책봉 외교 → 유교 통치 이념과 _____에 바탕 • 왕소군(화번공주, 흉노 호안야 선우, 기원전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위왜왕(조예~히미코 여왕, 239) • 남북조 시대(439~589) ⇒ :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 ↳ 실리를 고려하여 책봉국 선택 • 서로의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618~907) :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 _____공주 파견 ⇒ • 돌궐, 위구르, 토번 : 당과 _____관계만 체결 • 신라·발해 : 상호 교류, 당과 조공·책봉 관계 • 일본 : 견당사(630~894) 파견